



응급의료 이용하기



응급의료 올바르게 이용해볼까요?

경한 증상의 환자가 대형 병원 응급실로 집중 될 경우
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
시간적 · 경제적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.

중증응급환자를 살리고, '나' 자신을 위한 올바른
응급의료 이용, 이렇게 실천해주세요.

◎ 평소 앓고 있던 질환으로 응급실을 방문할
경우에는 그동안 다니던 병원을 우선 이용합니다.

◎ 응급실 가기 전 119와 먼저 상담하세요

갑자기 아프거나 다쳤을 때, 나의 증상이 응급인지 비응급인지,
응급실을 가야하는지 일반 병원을 가도 되는지 판단을 내릴 수
없을 때, **119**를 눌러주세요.

2013년 6월 1339와 119가
통합되며, 통합 전 질병 상담,
병 · 의원 및 약국 안내 등 1339의 업무가
119로 이관되었습니다. 이를 효율적으로
수행하기 위해 각 시 · 도에 119구급상황
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응급환자 질병상담, 병 · 의원 및
약국 안내, 주저말고
119를 눌러주세요~!



◎ “응급의료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
E-GEN을 사용하세요!!”

가까운 응급실 찾기, 병의원 찾기, 약국찾기,
명절 병의원 찾기 등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


- 응급실 찾기, 병의원 찾기,
약국 찾기, 소아아간진료,
명절 병의원 찾기, 명절 약국찾기
- 심폐소생술 방법 및 자동제세동기 위치 안내
- 독극물 등 응급처치에 대한 정보 제공

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
“응급의료정보제공”을
검색하세요!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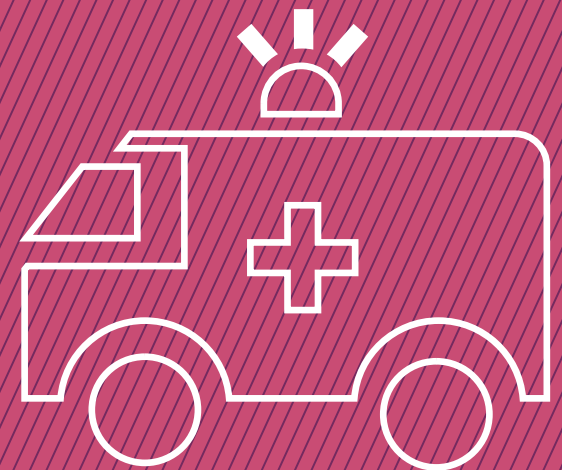
google play



iTunes



응급의료 올바르게 이용하세요!



보건복지부
MINISTRY OF HEALTH & WELFARE



국립중앙의료원
National Medical Center



응급의료기관별 기능 및 선택하기



응급실에도 종류가 있다? YES!

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응급실은 인력·시설 및 장비 기준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, 전문응급의료센터, 지역응급의료센터,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기타 응급의료시설로 나뉩니다.

구분	기능	현황
권역응급의료센터	상태가 심각한 중증응급환자 최종 단계의 응급의료기관	권역별 20개
전문응급의료센터	외상, 화상, 심혈관, 독극물	전국 2개(화상, 외상)
지역응급의료센터	지역 내 중증 응급환자 진료	전국 130여개
지역응급의료기관	경미한 환자나 일반적인 응급환자 진료	지역응급의료기관 - 전국 293개
기타 응급의료시설		

※ 응급의료기관의 개소수는 신규 지정 및 지정 취소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응급의료기관 현황은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 (<http://www.nemc.or.kr>)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응급실은 접수순서이다? NO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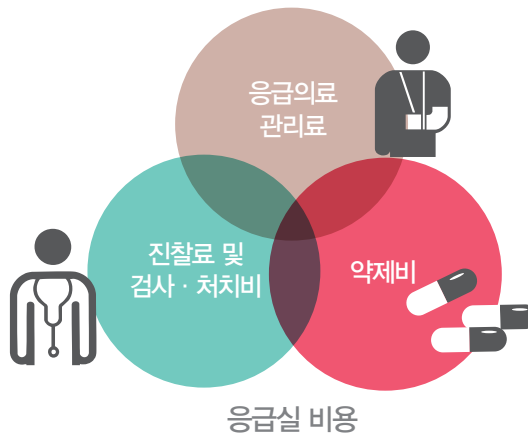
응급실은 접수순서가 아닌
응급도 순서입니다!!

가벼운 증상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방문할 경우 중증도에 밀려 진료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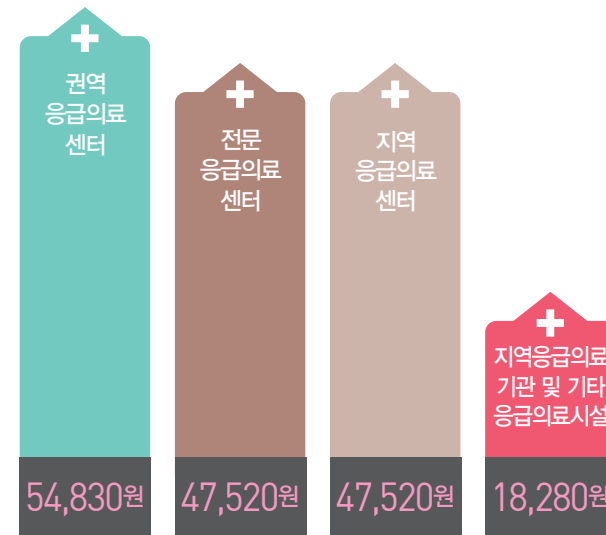


응급실은 진료 비용이 저렴하다? NO!

응급의료관리료의 차등부과로 인해 비응급환자·경증환자는 비용이 증가합니다.



◎ 의료기관별 응급의료관리료



◎ 응급의료관리료란?

- 응급의료관리료는 비응급환자로 인한 응급실의 혼잡을 막고 병원의 응급시설 등의 운영을 위해 접수비와는 별도로 수취하는 비용입니다.
-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.
- 응급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이 아닌 상태로 응급실 방문할 경우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.
 - 응급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응급실을 방문하였을 경우, 진료 후 바로 귀가했을 때에는 외래 진료비가 적용됩니다
 - 외래진료의 경우 의료기관의 종별 및 소재지에 따라 다르나 약 30~50%에 해당하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.

◎ 응급의료관리료의 본인 부담금

구분	내용	본인부담금
응급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 (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2조)으로 내원	응급진료 후 바로 귀가 시	외래진료적용 (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60%)
비응급증상으로 내원	모든 경우	전액 본인 부담